올 쌀농사도 '헛 농사'

생산비 16% 폭등에 쌀값 상승 6%에 그칠 듯

비료값과 면세유값이 크게 뛰면서 쌀농사의 경쟁력이 해마다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농촌인력 노령화에 따라 일손 구하기가 힘들어 품삯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반면 쌀값은 최근 4년동안 소폭 인상에 그쳐 쌀농사는 지을수록 손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료값·인건비 천정부지…경쟁력 끝없는 추락

비료 쿠폰제·농기자재 감세 기간 연장 등 필요

장성군 삼계면에서 쌀농사를 짓고 있는 A모(46)씨는 "지난해에 비해 올해 생산비가 너무 올라 가을 추수기에 만질 돈이 별로 없을 것"이라며 걱정부터 했다.

A씨가 200평의 논에서 조곡(도정 안한 쌀) 40㎏ 10가마를 생산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지난해와 올해 비교한 쌀 생산비를 보면 이같은 걱정이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지난해 대비 비료값은 1만~1만5천원에서 2만5천~3만원으로 100% 이상 올랐고, 로터리·콤바인·이앙기 임대료도 3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42.8% 인상됐다.

일손 1인당 하루 품삯은 남성이 5만원, 여성이 4만원에 육박해 남성 2인 기준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13만원(30%)으로 올려잡아도 일손부족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행스럽게도 농약값(6만원)과 종자대(9천원), 상토비(1만원) 등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숨통을 터주긴 했다.

A씨의 대차대조표에서 200평당 생산비는 지난해 25만9천원에서 올해 29만9천원으로 4만원(15%) 상승했다.

그러나 올해 조곡 40㎏ 1가마 쌀값(추정치)은 5만2천~3천원 선을 밑돌 것으로 예상돼 지난해 4만9천원보다 겨우 3천~4천원(6~8%)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내 쌀값은 2005년 4만4천200원, 2006년 4만6천200원, 2007년 4만7천원에서 올해 5만원대 초반에 머물 전망이다.

A씨는 "지난해 2천평에 쌀 농사를 했는데, 생산비 떨고 가족들 먹고 나니까 은행 이자 갚기도 빠듯했다"면서 "올해는 비료값, 기름값이 크게 올라 생산비나 건질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더욱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마저 2002년 87㎏, 2003년 83.2㎏, 2004년 82㎏, 2005년 80.7㎏, 2006년 78.8㎏, 2007년 76.9㎏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쌀 판매도 점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정부가 기름값을 보전해준다고 내놓은 '유가연동 보조금제도'나 비료값에 대한 인상차액 보전제도 등은 생색내기에 그칠 뿐 농가 살리기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정부는 화학비료와 유기질비료중 필요한 자재를 선택해서 쓸 수 있는 '비료 쿠폰제'를 활성화하고, 올해로 종료되는 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생산비를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작년 농림업 생산액 35조8천억원

전년비 1.5% 감소…농업 비중 쌀-돼지-한우 順

지난해 전체 농림업 생산액이 1년 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격 하락에 따른 축산 부문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농식품부가 11일 발표한 '2007년 농림업생산' 통계에 따르면 각 품목별 생산량에 판매가격을 곱해 산출한 농림업 생산액은 35조8천372억원으로, 2006년의 36조3천893억원보다 1.5% 감소했다. 농업이 34조6천850억원으로 1.6%, 임업이 1조1천522억원으로 0.4% 각각 줄었다.

연도별 농림업생산액은 ▲2004년 37조2천886억원 ▲2005년 36조2천729억원 ▲2006년 36조3천893억원 ▲2007년 35조8천372억원 등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농업 종류별로는 식량작물과 과일 생산액이 각각 5.3%, 5.0% 감소한 반면 채소는 1.8% 증가했다. 축산업의 경우 소·돼지·닭 등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1년새 11조6천763억원에서 11조2천773억원으로 3.4% 줄었다. /연합뉴스

"신용카드사 수수료 인하는 생색내기" 0.19% 인하에 그쳐

신용카드사들이 지난해 소상공인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을 밝혔으나 실제로는 생색내기 수준에 그쳤던 것으로 11일 지적됐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소상공인 사업체 2천10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수수료율이 지난해 11월과 비교해 0.19%포인트 인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일반 가맹점은 평균 0.16%포인트, 영세 가맹점은 0.26%포인트 하락했고,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0.11%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카드사들이 영세 가맹점의 경우 최대 2.3%포인트, 일반 가맹점은 최대 0.9%포인트, 체크카드는 최대 2.0%포인트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데 비하면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가을 커튼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는 11일 지하1층 커튼 매장에 올 가을 유행할 골드리벳과 와인 색상의 커튼을 선보였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 소상공인·중기 100억 보증지원

市-광주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협약

광주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에 100억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실시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재욱)이 중소기업은행과 '소상공인네트워크론에 대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 12일부터 약 700여개 업체에 100억원의 보증지원을 실시한다.

협약에 따라 기업은행은 자행 신용카드가맹점 결제 계좌를 보유한 자영업자를 광주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추천하고,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이들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서준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등은 시중금리보다 2% 이상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보증료를 포함한 각종 수수료를 감면받게 된다.

소상공인네트워크론은 기업은행에 신용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를 보유한 자영업자가 평상시 카드 매출액을 기준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 한도를 설정하고, 영업으로 발생하는 카드매출 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상품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LA갈비 등 뼈있는 미쇠고기

일반 판매 시작

4년7개월 만에 수입된 미국산 LA갈비 등 뼈있는 쇠고기가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네트 등 주요 수입육업체들이 배편으로 대량씩 들여오는 뼈있는 쇠고기도 이르면 이주 중으로 본격 유통된다.

수입육업체 '네르프'는 서울·부산·경기·충남·경남 등 전국 5개 지역의 육류 전문 취급업체 7곳에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1.47t을 전량 납품 완료했으며 이들 거래처에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물량은 네르프가 지난달 29일 들여온 뼈있는 미국산 쇠고기 1.47t으로 LA갈비, 갈비(Chuck Short Rib), 늑간살, 양지과 정밀검역을 거친 안창살 등 5개 부위이며 판매가격은 갈빗살이 100g당 1천800원, 나머지 부위는 1천500~1천700원 선이다.

네르프는 오는 12일에는 이들 주문업체 중 서울 신천에 위치한 쇠고기 전문 식당에서 시식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이달 말께 180t을 추가로 부산항을 통해 들여올 계획이다.

이네트도 10일 갈빗살 등 새 수입 위생조건(QSA)에 따라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 100여t을 부산항을 통해 들여와 검역을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14일께부터 직영 축산매장과 식당 프랜차이즈, 마장동 축산물시장 등 도매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트마트와 에이미트도 이달 중순~말까지 갈빗살과 목심, 양지 등을 각각 40t씩 수입하고 제니스, KR&foods도 선박편으로 미 쇠고기를 들여오는 등 추석 대목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의 대량 수입·유통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유사, 마트에 기름 공급땐 불매운동"

주유업계 대형마트 주유업 진출 규탄 결의대회

대형마트들이 정유사들과 손잡고 주유업에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는 데 맞서 주유소업계가 '대형마트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들을 타깃으로 한 불매운동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주유소협회는 12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임시대의원대회 형식을 빌린 결의대회를 열어 대형마트들의 주유업 진출을 규탄하고 이들 대형할인점이 설치할 마트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유사들에 대해 공급철회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애초 정부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주유소사업 진입을 검토한 것은 정유사 등 석유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석유제품 유통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게 본래 취지였는데, 현재 전개되는 상황은 애초 목적과 달리, 정유사들 간의 경쟁을 회피하고 석유시장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자영 주유소업계는 이런 정유사들의 이율배반적인 행위에 격분하고 있다"며 "만약 정유사들이 대형마트들과 손잡고 기름을 공급할 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윤호 장관 "정유사 판매원가는 기업기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11일 "정유사의 판매가격 발표 또는 공개 의무화는 고시가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원가나 판매가격은 핵심 영업기밀이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위에 출석, 국내 정유 4사의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개별 공장도가격을 공개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검토는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접근 방법을 취하면 모든 가격에 대해 원가를 공개하라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유사의 판매가가 담합이 아니냐는 일부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발된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담합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